

## 항암효과 뛰어난 오리고기 출시전망

항암효과가 뛰어난 오리고기와 삼계탕이 출시될 전망이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12일 지방산의 일종으로 항암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공액화리놀산(CLA)이 함유된 오리고기,삼계탕용 닭 생산기술을 개발, 식품업체인 화인코리아에 이를 이전해 올 하반기부터 CLA가 다량 함유된 오리고기,삼계탕용 닭고기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CLA는 항암, 함동맥경화, 항당뇨, 체지방 감소효과 등 생리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물질은 미국과 일본등에서는 분말형태로 시판되고 있으며 지방산중에서 암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DHA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식품개발연구원의 설명이다.

CLA는 불포화지방산인 리놀산의 결합구조가 변형된 지방산의 일종이다.

식품개발연구원은 리놀산이 함유된 홍화씨 기름, 해바라기씨 기름을 수산화나트륨(NaOH)과 반응시켜 CLA 성분을 만든 뒤 이를 사료에 3% 정도 섞어 오리나 삼계탕용 닭에 먹이면 체내에서 CLA 성분이 재합성된다고 설명했다.

식품개발연구원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사육한 오리의 경우 3백g 기준

3.75g의 CLA가 함유되며 삼계용 닭의 경우 4백50g 기준시 보통 2.25g의 CLA가 함유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술을 전수받은 화인코리아는 사료업체와 시험사육을 거쳐 올 년 말쯤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중국산 가금육 조건부 수입허용 방침세워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가금육이 조건부로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6월30일 김동태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조건부로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중국측에 가금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요청하여 반드시 사전확인 및 확인방법, 검사결과 유효기간등 구체화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수입허용 후 일정기간 또는 부정기적 수입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금지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특히 중국산 가금육 수입은 재개하되 반드시 가금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으로 조사된 4개업체에서 생산된 가금육이라야 하는 것을 못박고 중국측이 가금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음성이고 국내 도착후 일정기간 전수 정밀검사를 조건으로 수입재개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이같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중국측의 정밀검사와 국내 도착해서도 전수검사를 받는데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산 가금육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 유황오리 액기스 수출열기

민약에서 각종 순환기계, 호흡기계 질환의 예방치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국내 사육중인 유황오리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축출한 제품에 대한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의 한 무역업체에 따르면 국내서 생산된 유황오리 액기스 샘플을 독일과 미국 등지에 보낸결과 수입하겠다는 오판이 들어왔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 상담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국내 생산업체는 제대로 된 유황오리 액기스를 만들기 위해 관련학계 및 수출업체와 상담중이라며 일정량의 수출이 이뤄질 때 까지 수출가격에 상관없이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리 평사사육이 케이지 사육보다 산육능력, 도체형질에 유리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육용

오리의 사육형태는 평사사육이 케이지 사육보다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가 수입된 체리베리사 폐킹종 오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케이지에서 사육하였을 때 8주령 체중은 암컷과 수컷의 체중이 각각 2.76, 3.05Kg이었고 사료요구율은 각각 2.66, 2.52% 였으나 평사에서 사육한 오리는 암컷과 수컷의 체중이 각각 3.45, 3.76Kg, 사료요구율은 2.26, 2.15%로 평사에서 사육한 오리의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의 도체성적에 있어서도 도체율은 케이지 사육과 평사의 성적이 비슷하였으나 북강지방 축척율은 케이지 사육이 평균 0.42%, 평사사육이 0.56%로 평사의 성적이 높은 반면 목부위는 케이지 사육이 11.4%, 평사사육은 10.62%, 가슴육은 케이지 사육이 29.62%, 평사사육이 32.19%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사사육이 가슴육의 비율이 높고 목부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도체형질에 있어서도 평사사육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육용오리 출하일령 북경기따라 부분적으로 회복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북경기로 인한 소비유통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역적으로 다소 앞당겨지고 있다.

본회가 20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호남 지역은 출하일령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부지역은 3-4일정도 출하일령이 앞당겨져 46-47일령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육농가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용오리 가격도 사육농가간 차이는 있으나 중부북부의 경우 4천원에서 3천8백원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중부지역의 경우 4천2백원에서 4천원 선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호남지역은 50일령내외에 육용오리 가격역시 4천2백원에서 3천8백원선까지 거래가 이뤄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같이 중부지역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은 여름철 장마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 따라 소비유통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달 종란 4,540개 도입 수입육은 전월대비 32% 증가

종자개량용 종란이 영국으로부터 4천5백40개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란수입은 영국에서 4천5백40개가 도입되었으며 금액상으

로 7천4백35달러 어치로 종란개당 수입가격은 환율 1,200원시 1.64블로 2천원선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개량용으로 수입된 이 종란은 충남 천안의 H부화장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오리고기 수입은 태국과 미국으로부터 19건에 198톤이 수입되어 전월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상으로는 57만1천달러로 Kg당 수입가격은 2.8달러로 선으로 전월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전월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은 국내 산지오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북경기 수요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수도권지역 오리고기 소비형태 새로운 바람 분다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을 맞으면서 수도권지역의 오리고기 소비형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오리고기 소비형태가 요식업소의 중심에서 점차 일반 소비자를 직거냥한 유통형태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요식업소의 경우도 로스, 탕양념구이등에서 숯불구이, 유황오리,가공품을 이용한 고급식 메뉴를 다양화하여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리고기 체인화

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의 경우 기존메뉴에 가공품을 추가하여 고급화된 다양한 메뉴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체인점 오리바다가 체인화 사업 2달만에 3개의 사업장이 오픈됐다.

또 안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체인화 업체 나오리는 1회용 황토구이판을 이용해 로스와 양념구이를 일반가정에 까지 배달하는 배달체인점이 최근 오픈됐다.

이 배달체인점 역시 체인화 사업 2달만에 수원, 원주 등에 총판사업장이 오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에서 오리고기를 유통하는 한 유통업체역시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오리고기를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하겠다는 영업방침을 세워놓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한 관계자는 수도권에 오리고기 소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같은 소비형태의 변화는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확대가 국내산 오리고기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국내 오리업계가 생산비를 낮춰 이들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산육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용오리 새끼값 약세에도  
종오리 사육수수 줄지 않는다  
배합사료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

산지육용오리 가격 및 새끼오리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종오리 사육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집계한 6월배합사료 생산량 동향에 따르면 종오리 사료 생산량은 총 1천7백4톤으로 전월 1천6백13톤보다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종오리 사료생산량은 산란에 가담하는 암컷 종오리 사육수수 기준으로 18만9천수가 사육되는 양으로 전월에 비해 5.5% 증가된 물량이다.

또 육용오리 출하량을 가늠할 수 있는 어린오리 사료생산량역시 총 2천5백87톤이 생산되어 전월대비 2.2% 증가됐다.

따라서 육용오리,새끼오리 가격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종오리,새끼오리 입식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의 약세향진은 지속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체 오리사료 생산량은 1만7천4백61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됐으며 이같은 지난달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오리 배합사료가 생산된 이래 월별 생산량에 있어 최대의 생산량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6년과 97년 같은기간에 비해 58%,34%가 각각 증가된 량이다.